

##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71)(5/27/2022)

## 제 3 권 내적 위로

## 제 45 장 사람은 말에서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지 않아야 함, 3-4 절

시 54:1-4 - 1.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이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3. 참으로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터를 잡고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이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사람이 쏘아붙이는 말들에 금세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겠으며, 누가 장래에 닥칠 모든 해악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리 내다본 일들에 의해서도 종종 상처를 입는데,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들에 의해서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런데도 미리 좀 더 잘 대비하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한심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쉽게 믿어 버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천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여,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속이실 수도 없으시고 속으실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다 거짓되고(롬 3:4) 연약하며 불안정하고, 특히 말에서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옳아 보인다고 해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4. 주님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 10:17, 36)고 하시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마 24:23)고 하신 것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말씀입니까? 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해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 꼭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한 말을 발설해서는 안된다고 믿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마디도 발설하지 않았지만, 내게 발설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바로 그 사람은 도리어 얼마 안 있어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여, 나와 자기 자신을 배신한 후에 떠나 버렸습니다. 주여, 그런 식으로 허풍을 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런 자들의 수중에서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내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일이 없게 해 주시며, 내 입에는 늘 참되고 변함없는 말들만이 있게 하시고,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의 말들은 내게서 제거해 주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겪고 싶지 않은 일은, 어떻게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내가 형성하고 있는 인간 관계를 다 정리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인간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인간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돕는 베품”(창 2:18)이었다. “돕는 베품”이라는 말은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한다. 서로 돕고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특히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간 관계에 의지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 돕는 존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기도 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잘 일구어 가면서도, 그 관계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언제나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윗은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된 사울왕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다. 시 54:1-4 - 1.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이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사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지만(삼상 24, 26 장), 복수의 기회를 스스로 내려 놓으며 하나님의 손에 사울과 자신의 억울한 고난의 해결을 맡겨 드렸다. 이 모습은 다윗이 사람으로 인해 큰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원수 같은 사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다윗처럼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은 고난 자체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 당한 고난은 사실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심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훈련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 오는 만나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만나는 허기진 백성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했다. 신 8:3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목이 마를 때면 광야에서 물이 샘솟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 이 모든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고, 광야의 고난같은 견디기 힘든 일들에 직면할 때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솟는 물을 기억함으로 쉽게 좌절하며 불평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디며 승리하도록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환난 위에 계시고, 환난 보다 더 크시고, 환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미 7:7-9 -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8.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었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 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9.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봄으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기관들(잠비아 Chasefu 신학교, 콜럼비아개혁신학교(보고타, 고석훈 선교사), 콜럼버스하우스(노숙자 사역), 가나 모자병동, 햄튼고등학교, IRIS(난민사역), OMSC, GMLF)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미국 내에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지역들(목회자가 없는 지역,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 원주민 보호구역, 각종 사회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소외된 지역)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